



## 제2장 유교 儒敎

유교란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에서 태어난 대성, 공자의 교훈을 신봉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종교로서 학문하는 선비들에 의해서 종교로서 일반적으로 유학, 유도로 불려졌으나 한무제(漢武帝)이후에 유교라고 불려진 것은 도교와, 불교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측되며 유교로서 체계화되고 학문으로 집대성되기는 공자에 의해서이며 그의 연원은 요, 순, 우, 탕, 문무, 주공 등에 두고 있으며 도덕정치, 인, 의에 의한 자기수양으로부터 치국, 치세에 이르는 인간생활을 배우고 묻는다는 학문으로 연계하여 오직 군자가 되기 위한 길을 닦게 하는 것이 유교의 근원이며 선비의 학문이라 할 것이다.

유교는 중국의 선진시대까지는 노자, 장자의 도가사상과 더불어 2대 조류를 이루었으나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의 참화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인멸상태가 되었으나 한무제(漢武帝)에 이르러 제자백가사상(諸子百家思想)을 물리치고 중흥되어 국가의 정치 교육의 기준이 되었다.

후한(後漢)으로 접어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유입하고 도교의 성행에 맞서 종교적 성격으로 변신하면서 공자의 제자 십철(十哲) 칠십이현(七十二賢)의 영정과 위패를 태학에 모심으로서 비로써 신앙의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이변이 생기고 중국의 한말이후 남북육조를 외치면서 불교 도교의 사상을 혼합하고 심지어 음양사상까지 물들기 시작하여 순수한 유교의 진면목을 잃게 되었다.

중국의 수(隋), 당(唐)을 거치면서 유교의 소멸위기를 당하였으나 한유(韓愈) 이고(李翱) 등 대학자의 탄생으로 중흥의 계기가 되었으며 송나라에 들어와 정자(程子)가 탄생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여 주자(朱子 명 憲)에 의해 집대성되어 성리학으로 완성되었다.

성리학은 유학을 중심으로 불교 도교의 영향을 흡수하여 철학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천명을 인륜도덕의 표상으로 삼으며 인간의 이성이란 태극, 음양, 오행의 순환원리에 의해서 생성되며 역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으로는 사람의 심성에는 도덕적 이성이 품수되어 있으며 도덕적 이성을 가지게 하는 주체가 바로 천명이라고 해석하여 철학적인 학문으로 확립한 것이 성리학이라 할 것이다.

유교는 오경, 사서의 경전이 있어 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를 오경이라 하며,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 하여 유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삼으며 공자가 서거한 뒤에 증자에게 전하는 학파를 정통으로 연원을 세우며 발전하였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과정은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서기 285년(百濟古爾王 52년) 백제 박사 왕인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달하여 일본문화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유학이 백제에 수입되었음이 증명되며 고구려는 372년(高句麗 小獸林王 2년)에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에서는 이보다 늦게 682년(神文王 2년)에야 국학을 세워 유학의 전통적 학문을 전수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설총(薛聰) 최치원 등 대유학자가 명성을 떨쳤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도 국교를 불교로 하면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는 유교의 양식을 답습하였으며 유교로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전달받는 방편으로 삼았다.

고려가 삼국통일을 성취한 후에도 984~1068년대에 최충 1070~1130년대에 김양감 1243~1306년대에 안유(安裕 일명 향)와 같은 대학자가 출생하여 중국에서 성리학을 전수받아 국내에 가르침으로 동방유교가 꽃피워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안유의 제자 이색, 정몽주와 정몽주의 제자 길재 등이 고려말의 문신으로서 유명하며 유교중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이 되면서 송유배불(崇儒排佛)정책을 국시로 하여 유교를 국교로 하고 조선 태조 7년(1398년 戊寅)에 서울 송교방(崇敎坊 현 明倫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유학을 강의하는 태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문묘(文廟)를 지어 공자를 비롯하여 136명의 중국 조선의 선현들

의 위패를 모시고서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를 지어 200명의 태학 학생이 숙식을 하면서 수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학을 만들게 되었고 조선조가 조업한 1392년(조선太祖1년 壬申) 태조의 명에 의하여 제도의 안찰사로 하여금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기 1개교의 향교를 세우게 하였다. 우리나라 국립학교제도가 처음 생겨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향교도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문묘(文廟)인 대성전(大聖殿)을 지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철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명륜당을 지어 강당으로 사용하고 동서양무와 동서양재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숙식의 편의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학교의 흥폐로서 지방관을 고과하는 법까지 만들었으며 자연히 유학진흥의 계기가 되었으며 미구에 전국적으로 완전한 국학의 설립이 완료되면서 교육제도로써 확립되었다.

조선조 초기의 유교는 절의와 도덕의 실천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 사화라는 참극이 되풀이 되면서 절의와 도덕 정치를 주장하는 사림파와 수구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훈구파로 갈라져 피비린내 풍기는 사화가 점철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귀향 가서 죽어가는 참상이 계속되었음으로 마침내 뜻있는 유학자들이 정계를 떠나서 산림 속으로 피신하면서 성리, 심법의 이론적 연구에 치중하여 이론유학 성동이설 등으로 대표적인 것이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설(理氣二元說)과 율곡 이이(李珥)의 이기합체설(理氣合體說)이니 각기 연원에 따라 학파가 생겨나고 학파간의 분쟁으로 사화가 생겨 죽이고 죽는 참사가 발생하는 동안 관료는 타락하고 유교는 쇠약해지면서 학파 사문간의 각기 서원 향사를 세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당파가 형성되며 정치는 문란하여지면서 유학은 더욱 쇠퇴하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조선조의 숭유배불정책으로 유교중흥의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유학의 현철(賢哲)이 출현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야은(冶隱) 길재선생의 제자로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를 비롯하여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이언적 김인후 성혼 조헌 송시열 박세채 상기한 명현들 외에도 조선말에 최익현 송병선과 같은 명유가 출현한 것은 유교의 종교적 학문적 저력의 소치라 할 것이다.

우리고장 장수에 유학과 한문이 전래되기는 정식계통에서가 아니라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삼봉리 일대에 백제중엽까지 존재하였던 황씨씨족집단이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유교와 한문서적들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 패쇄적 씨족국가시대 이기에 대중적 교육제도로 이용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고려때의 장수는 유배지(流配地)로 지정되어 유명한 명인달사들이 이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였으나 죽거나 유배에서 풀려나면 다시 떠나 버렸으나 장수땅과 인연을 맺은 명현으로서 특기할 분이 정신재 백장선생이며 후손들과 인척이 모두 장수땅에 입주하여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며 학파와 인맥을 형성하면서 전라도 좌도인맥(左道人脈)을 형성하면서 문향으로서 이름을 떨쳐 좌장수 우부안이란 전라도의 상징적인 문향이란 평이 전래되었다.

전기한 정신재 백장선생이 장수현 임내면 호덕동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는 시기에 장수현 출신인 방촌 황희선생이 장수현 임내면 도지촌(陶旨村 현 장계면 월강리 도장마을)에 유배되어 고려를 대표할 백장선생과 조선을 대표할 황희선생이 교류하면서 근방의 선비들에게 정통유학을 가르치기 시작, 각처의 선비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으니 이때부터 「자식을 낳으면 장수로 보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 환경으로 변하였다. 정신재 백장선생의 아들 백형옥은 조선조에 출사하여 판서의 벼슬에 올랐으니 그 외 사위에 퇴휴재 송보산과 손재 김남택이 예조판서와 이조판서의 현직에 있다가 1455년(世祖 1년 乙亥) 단종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이 충신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상왕복위를 꾀하는 성삼문 박팽년 등 여섯 사람의 충신을 사형하고 집현전을 폐지하는 폭거를 보고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구조의 명관이자 충신인 처조부 백장선생이 유배되어 귀양살이 하는 곳에서 멀지않은 장수현 임남면 침령마을에 새터를 잡아 살면서 시문과 풍류를 즐기면서 여생을 살았다.

퇴휴재선생과 손재선생은 장수고을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으나 특기할 것은 임남면 조곡마을에서 태어난 뇌계, 유호인선생일 것이다.

뇌계선생은 어려서 퇴휴재 송보산선생에게 사사하여 학문을 시작하였으나 퇴휴재선생의 소개로 점필재, 김종직선생의 문하로 들어가 성리학과 사장(詞章)에 대한 연구에 통달하여 뒤에 성종조의 문장삼절로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손재 김남택선생의 손자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인의 벼슬에 오른 김영호가 있으며 그의 아들 윤걸도 역시 문과급제 후에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그의 사위에 파은(波隱) 박수기가 있었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내 외직을 거

쳐 강원도감사로 명성을 얻었으나 연산주(燕山主)의 폭정이 시작되면서 벼슬자리를 버리고 낙향하여 장수현 임남면 기산마을 터를 잡아 이주하였으니 호남좌동인맥의 거목이라 할 것이다.

1592년(宣祖 25년 壬辰)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서울이 풍전등화의 위험이 닥쳐 병든 아버지 이희양 공을 등에 업고 5백리 호남길을 걸어서 장수현 임내면 도지촌에 피신 온 도암 이정광선생은 장수출신의 거목 방촌 황희선생의 손자 상(祥 字引儀)의 외손으로 방촌선생의 유배지에서 귀양살이 수바라지를 하면서 놀러앉아 살다가 외손에게 양도하고 새로 터를 잡아 집성촌을 이룩하여 이주하였으며 도암 이정광선생은 이 자리에 망화당을 세우고 후세 교육에 전념하여 방촌선생의 연원을 이어온 학문의 정통이라 할 것이다.

장수군의 남쪽으로 눈을 돌려 보면, 우선 장수현 수서면 오산리에서 1432년(世宗 14년 壬子)에 출생한 국현 임옥산(林玉山)선생을 상기한다.

1451년 진사시(進士試) 장원으로 1456년 무과 3위로 합격하여 문무겸전한 국현 임옥산선생은 장수현감으로 부모에게 효도하여 출천지효라 숭앙존경하며 우리고장 장수땅의 긍지를 심어준 현철이라 할 것이다.

1500년대초 산서면 하월리에 거주하는 창원정씨 가문의 두집에서 세사람의 명현이 출생하였으니 회산(檜山), 정환(丁煥)과 유현(遊軒) 정황의 형제와 만현(晩軒) 정엽이니 일가문에 불과 30년내에 3인의 명현을 출생시켜 경향에 명성을 떨쳤다.

회산 유현의 두선생은 정암(靜庵) 조광조선생의 문인으로 모두 과거시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회산은 경상도 도사 유현은 의정부검상으로 봉직하다 유현선생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곤양과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작고하여 지조를 꺾지 않은 선비로서 추앙받아 두 분이 다같이 영천서원에 배향되어 후세유림들의 표상이 되었다.

만현 정엽선생은 미암 윤희춘선생과 유현 정황선생에게 사사하고 1560년(明宗 15년 庚申)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에 입신하여 고부군수로 있으면서 정여립의 모반을 평정한 공으로 평난공신이 되었으나 이것을 사양하고 정유재란 때는 의병장으로 남원성을 공략하는 왜군을 쳐서 커다란 군공을 세웠다. 영천서원에 배향하여 유림의 표상으로 추앙하며 활계 이대유선생과 같이 지금 당을 세워 후세교육에 힘써 더욱 유림들의 추앙을 받는다.

이 시기에 계남면 화양리 유천마을에 세운 양심현 양성린선생의 후세교육은 당세 유림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유학의 대가로 화음 김영갑선생 수우당 한인기선생은 장수 유학에 큰 영향이 있었다.

정신재 백장선생의 후손으로 1452년(文宗 2년 壬申)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오른 백운비선생과 더불어 산서면 학선리에서 태어나 여생을 보낸 비암 박이항선생 계남면 화음리 기산마을에서 태어나 올곡문학에서 수학한 안재, 박지견선생 1730년(英祖 6년 壬申) 변암면 노단리에서의 유학에 남긴 공로는 큰 것이다.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향교라는 국가 건립의 학교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학파나 인맥을 따라 사색당쟁이 심화되면서 장수유림들만이 예외일 수 없었다. 자고로 충성심과 정의에 투철한 장수유림들은 도의 정치와 국태민안을 주장하는 사림파의 학파와 인맥을 이어오는 계통으로서 1695년(肅宗 21년 乙亥)에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에 창계서원(滄溪書院)을 세워 정통 서원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그 학연을 방촌 황희선생 나부 황수신선생 뇌계 유호인선생 송탄 장응두선생을 배향하며 서원의 상징으로 삼았다.

다시 1789년(正祖 13년 乙酉) 장수현 수서면 학선리에 압계사를 세워 덕곡(德谷), 육려(陸麗), 국현(菊軒), 임옥산(林玉山) 삼암 박이겸 비암 박이항 고산 전설선생의 5현을 배향하여 상징으로 삼으며 산서근방의 유림교육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장수유학의 금지로서 발전하였다.

1815년 장수현 임내면 서변마을에는 도암사가 설립되었으니 도암 이경광선생 영의정을 지내신 분사 이성구선생 삼세계방으로 이름 높은 강고 유심춘선생을 배향하였으며 방촌 황희선생과 서애 유성룡선생 분사 이성구선생의 3대 영의정의 학통을 이어받는 향사로서 경향에 명성을 떨쳤다.

1818년(純祖 19년 戊寅) 장수현 천천면 장항마을에는 용암사를 세워 청백리록 제1위에 오른 천국 안성선생 양심현 양성린선생 화음 김영갑선생 수우당 한인기선생의 4현을 배향하여 장수지방 향선생을 위주로 하는 금지 높은 향사로 학당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828년(純祖 28년 戊子) 장수현 임내면 월강리에 월강사를 세웠으니 고려수절신(高麗守節臣) 정신재 백장선생 퇴휴재 송보산선생 손재 김남택선생 일휴당 최경희선생의 4현을 배향하여 충절의고장 장수의 전통적 애국심을 선양하는 향사로서 명성을 떨치었다.

월강사는 1592년(宣祖 25년 壬辰)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전라좌도의병장(全羅左道義兵將) 최경희 장군이 의병청을 설치하여 의병조련장으로 사용하



던 곳으로 충절을 자랑하는 장수의병의 후손들이 성금을 각출하여 설립한 향사로서 국난을 당했을 때 선비들이 꺾기하여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전례를 남긴 거룩한 사당이며 후세교육의 성전이라 할 것이다.

1961년 광복후에도 장수유림의 유학에 대한 극성은 멈추지 않고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화산마을에 화산사가 설립되었으니 파은 박수기 놀재 박상충암 김정 안재 박지견 사암 박순 육류정 박지효선생 등 6현을 배향하여 상징으로 추앙하며 유림의 사표로 삼으며 그 유덕을 흠모하며 도의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니 유교사의 한장을 기록할 것이다

1847년(憲宗 13년 丁未)에 장수현 수서면 사상리에 사동사(社洞祠)를 설립하고 김준손 김기손 김일손 김대유 김치삼 김정택의 김해김씨 문중의 6현을 배향하고 향사로서 규모를 갖추었으니 서원으로의 역할보다 가묘(家廟)로의 구실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다.

1963년(癸卯)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에 세덕사(世德祠)를 세워 손순(孫順), 손극훈(孫克訓), 손빈(孫斌), 손승명(孫承明), 손흥조(孫興祚), 손빈(孫賓) 6공을 배향하고 향사의 규모를 갖추었으나 밀양손씨의 가묘로서 구실에 그치고 있다.

서원 향사의 제도가 생기면서 학과 인맥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유림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모여 유교중흥의 학문연구와 도의실행을 외면하고 실리와 당파싸움에만 열중하여 동서남북 노소론 등 수많은 당파가 생겨 조선 5백년의 사직이 망하게 됨으로 일제침략을 당하여 더욱 쇠퇴하여 교맥이 끊어지는 위기를 당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전국의 유림들이 총궐기하여 1946년 전국유림대표가 성균관에 모여 유도회(儒道會)를 조직하고 각도에 유도회 지부를 두어 각 군향교에 군지회를 조직함으로써 전국에 228개의 지회가 생겨나 유교중흥의 계기가 되는 듯 하였으나 예전과 같이 유교교육에 치중함이 없이 선성선현(先聖先賢)의 향사(享祀)인 석전과 삭망향례에 그치고 있어 유교중흥의 가망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니 선대의 우리의 조상들이 유도교육을 충실히 하여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이란 찬사를 받은 나라의 후세 국민들이 서구문물에 물들어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패륜 부도덕의 극치를 이루어 세인이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물질만능의 현대문명을 여과하여 동양본연의 도덕의 사상을 되찾는 도덕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민족 고유의 유교

강령인 충, 효, 열, 자선 등의 풍습이 되살아나 유풍선양이 성취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